

광양 두 번째 어린이도서관 '꿈빛도서관' 개관

마동근린체육공원 인근에 1441.03㎡ 규모...책 1만4000여권 보유 자율창작공간 '꿈뜨락'·열린교육공간 '책뜨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

광양의 두 번째 어린이도서관인 '광양꿈빛도서관'이 지난 5일 개관했다. 광양시는 이날 지역 어린이, 학부모, 도서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개관식을 개최했다. 광양꿈빛도서관은 광양시 마동근린체육공원 인근(무동길 97)에 위치하며, 연면적 1441.03㎡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도서관은 개방형 구조로 설계돼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층에는 어린이 자율 창작공간인 '꿈뜨락'과 교과연계 도서, 학습만화, 어린이 잡지가 비치되어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 열린 교육공간인 '책뜨락'과 동화 및 그림책 공간이 마련돼 있다. 현재 보유 장서는 약 1만4172권이다. 지난 7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 도서관은 도서 열람과 어린이 기관 견학, 올해의 책 및 추천

도서 전시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특화 공간인 '꿈뜨락'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독서 및 창작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상반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부모 대상 '그림책 감성 문해력 지도사 과정', 유아 대상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놀이', '동화 속 요리 만들기', '어린이를 위한 문해력을 부탁해', '과학 맛볼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개관 행사에서는 책과 놀이가 결합된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김경희 그림책 작가의 1인극 공연을 비롯해, '나만의 꿈빛도서관 키링 만들기', '그림책 읽고 레고 피우기', '매돌이를 찾아라! 미션 게임', '인생네컷 포토존', '올해의 책 필사 및 퍼즐 맞추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마련됐다. 또한 '함께 만드는 공간 꿈뜨락'이라는 이름으로 재료 기부 이벤트도 함께 열려, 도서



'광양꿈빛도서관'이 지난 5일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관을 시민과 함께 조성해가는 의미를 더했다. 도서관은 정식 개관 전인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일평균

300여명, 총 4000여명이 방문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광양시가 처음 시도한 자율 창작 공간인 '꿈뜨락'은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체험 프로그램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김미라 도서관과장은 "꿈빛도서관은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경험하며 배우는 공간으로 기획됐다"며 "특히 자율창작공간 '꿈뜨락'은 독서를 기반으로 어린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공간으로, 향후 운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꿈빛도서관 개관으로 총 7곳의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게 됐다. 각 도서관은 고유한 주제를 기반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인문·철학, 중앙도서관은 역사·문화, 희망도서관은 미래교육, 용강도서관은 건강·치유, 금호도서관은 예술, 광영도서관은 영어, 꿈빛도서관은 창의 영역을 담당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꿈빛도서관이 학교와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과 아동친화도시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6일 7000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올해의 누적관객 200만명을 돌파하는데 한 몫한 캔들라이트 콘서트.

순천만국가정원 올 개장 157일만에 관람객 200만명 돌파

대규모 캔들라이트 콘서트 인기 여름휴가 '정원캉스' 명소 부상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157일 만인 지난 6일, 올해 누적 관람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200만 번째 관람객의 주인공은 서울에서 방문한 30대 부부, 현충일 연휴를 맞아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7시간을 운전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았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올해 사계절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꾸준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6월 들어서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야간 개장과 함께 '정원캉스'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300만 명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7월부터는 운영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한여름 오아시스'를 콘셉트로 ▲개울길 정원캉스 ▲한옥 밤마실 ▲정원드림호 수상버스킹 ▲어싱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기업과 연계한 생태·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정원 생태 전문 강좌와 테라피, 해설사 동행 투어 등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이 단순한 관광지 넘어 사계절 쉼과 치유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재즈페스티벌 '예술의 섬' 장도 뜨겁게 달궜다

관객 1000여명 호응 속 성료

'2025 여수재즈페스티벌'이 관객 1000여명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7일 '예술의 섬' 장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재즈 공연으로 올해로 3회째이며, '소풍'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관람객들은 돛자리와 간식을 준비해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감상했다. 공연은 NS JAZZ 밴드의 정제된 음악을 시작으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후 마리아 김 퀵텟의 깊이 있는 연주와 보컬, 한영애 밴드의 감동적인 무대가 이어지면서 관객들의 환호와 탄성을 이끌어 냈다. 이날 가족과 함께한 한 시민은 "장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감미로운 음악이 어우러진 최고의 공연이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여수재즈페스티벌은 섬이 가진 고즈넉한 분위기와 감미로운 선율이 어우



'여수재즈페스티벌'이 지난 7일 여수 장도에서 관객 1000여명의 호응 속에 개최됐다.

러지면서 관람객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며 "2026여수세계음악박람회를 앞두고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여수'다운 문화 콘텐츠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장도를 거점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며 '지속 가능한 예술 섬' 브랜드 구축에 힘을 기울였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 숲길에 주소 생겼다

맨발길 등 9개 도로명 신규 부여

고흥군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사진)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주소가 없던 숲길에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등산객이 길을 잃거나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기존 트레킹 코스의 명칭을 반영해 ▲편백 맨발길 ▲문재고개길 ▲토암언덕길 ▲산들허브길 ▲서낭당소원길 ▲순배음길 ▲장수편백길 ▲무병길 ▲황토무병길 등 총 9개의 도로명을 신규로 부여했으며, 약 100m 간격으로 기초번호판 64개를 설치했다. 설치된 번호판은 수목 스프링 고정 방식을 활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으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축광형 재질로 제작해 시인성을 높였다. 또한, 'SOS 원스톱 시스템'이 적용돼, 등산객이 스마트폰으로 기초번호판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즉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숲길 주소 부여로 등산객의 길 찾기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소가 없는 산책로, 농로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해 주소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5일 보성 천연염색공예관에서 부부의 연을 맺은 지 60주년을 맞이한 1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라마인드 웨딩 '회혼식'을 개최했다.

주암댐 인근 노부부 14쌍 '감동의 회혼식'

수자원공사 주도 라마인드 웨딩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주암댐 주변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지 60주년을 맞이한 14쌍 부부의 라마인드 웨딩 '회혼식'을 지난 5일 보성 천연염색공예관에서 가족과 친지, 지역 의원 및 유관기관 내외 귀빈들을 모신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부간 사랑백백 및 자녀 영상편지 등이 상영되며 참석자 모두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회혼식 주례를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장병훈 수자원환경부장은 "이번 회혼식은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기쁨을 나누고, 어르신들께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마련된 자리다"고 밝혔다. 문금주 국회의원도 축전을 통해 "금년 회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역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례군, 어린이 '우리 몸에 좋은 수산물' 교육

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5일까지 관내 등록급식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주간의 수산물 인식개선 교육을 마무리했다. <사진>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수산물', '우리집 식탁에서 만나는 바다'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관내 등록급식소 관계자는 "교과와 연령별 활동지를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수산물과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박인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이번 영양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수산물을 활용한 음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다양한 식단을 골고루 섭취하여 면역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